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 자료



샌 드라는 인생의 바닥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함을 향하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교우들 각자의 다른 은사로 그녀를 후원했던 신실한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교우 한 사람은 그녀의 회복 과정을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녀에게 불어넣어 주었고, 또 다른 이는 주택 구매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 헌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샌드라를 도왔던 더 나은 지역 개발 프로그램(Better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물론 그녀의 노력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합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언쟁하고 반목하며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불의를 낳는 체계와 권력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변혁적 사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

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4-7).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아프면 우리 모두 아픕니다. 그저 “내게만”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돌보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일하는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빈곤의 무게에 눌린 채 묻혀 있습니까? 양질의 주택, 및 교육과 의료를 통해 각 사람이 가진 거룩한 가치가 인정될 때, 전체 사회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의 저서 *Birth of a New Age*(새 시대의 탄생)에서 “인간적 삶은 개인의 좁고 이기적인 관심사를 넘어 모든 인간을 향한 광범위한 관심사에 이를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혼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 자료

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선”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 함께 일한다면,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샌드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봅니다.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한 여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할 때, 우리의 교회 내에서 또 연회를 통해 가능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역의 예를 이곳에 말씀하세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가족인 하나님의 나라, 즉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바울은 지식, 지혜, 예언, 기적, 치유, 분별, 통역과 방언이 공동선을 위해 동역하라고 주신 은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교회로 세상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인종평등선교주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공동선을 위해 사용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습니다. 우리는 제도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물은 종교계통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7

